

고용계약서



YONHAP NEWS

**장애인의 고용의무제도
고용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?**



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무엇일까요?

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국가·지방자치단체·상시근로자 50인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

그런데 우리는 왜 장애인 근로자를 자주 보지 못하는 걸까요?
그리고 만약 고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?

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*은 최소 1,078,000원입니다.

현재 최저임금인 179만원에 턱없이 낮은 돈입니다.

2014년 기준 장애인의무고용률**은 2.54%,입니다.
장애인의 전체 인구는 4.9%, 2배 가까이 낮습니다.
규정된 의무고용률의 최소 3.1%에도 못 미칩니다.

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경우 단 한 번도 의무고용인원을
충족하지 못했습니다.

우리가 장애인 근로자를 자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
장애인을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것보다 고용부담금을
지급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.

*의무고용률을 미달하였을 때 납부하는 금액

**통계청 2015. 12. 「장애인의무고용현황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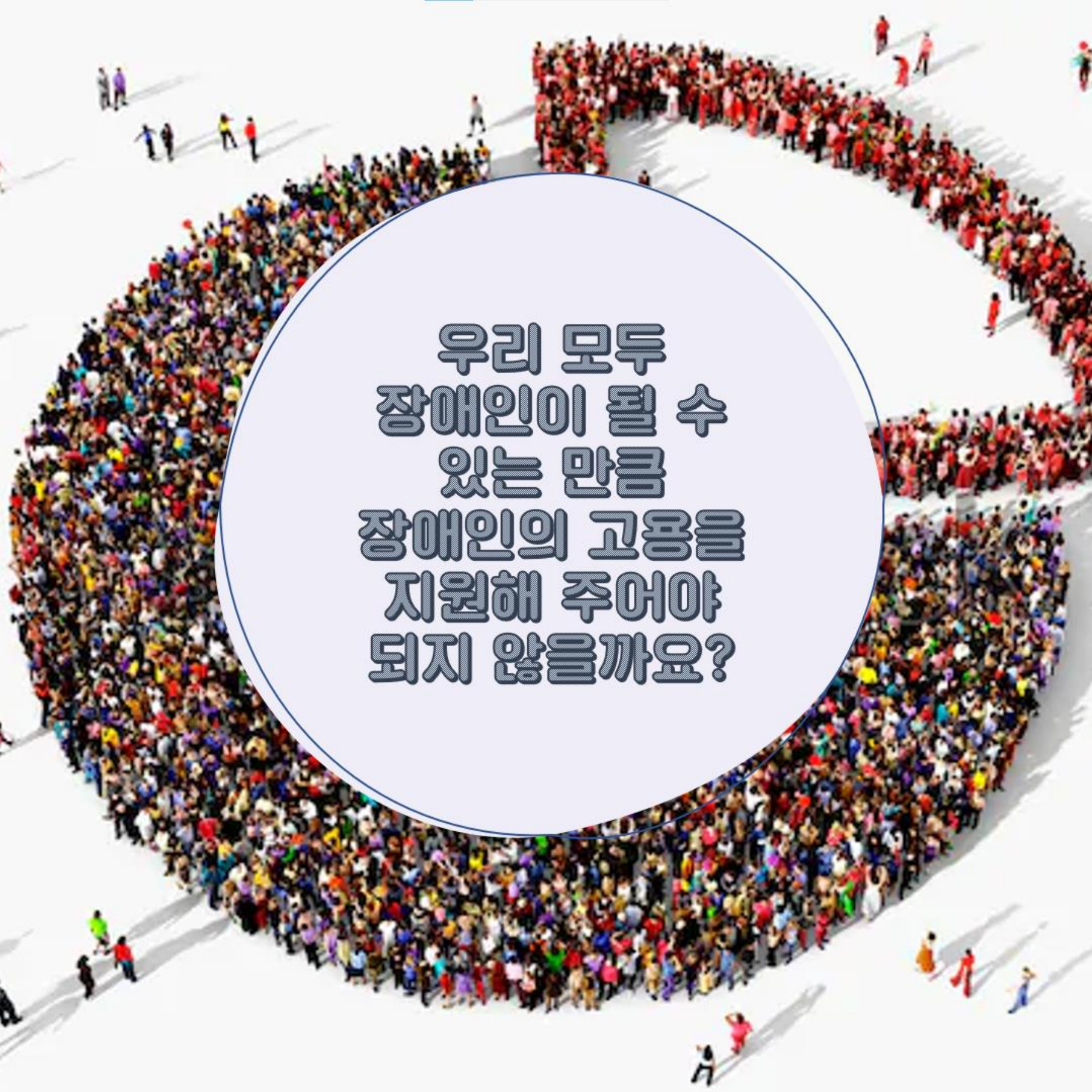
이러한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고용부담금은 제도를 회피하게 함으로, 이는 장애인 때문에 돈이 나간다는 인식과 더불어 더 낮은 고용률로 이어집니다.

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?



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의
60%에서 90%~100%대로 올리는
것입니다.

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올리고
쓸데없이 쓰이는 돈을 줄이고
장애인들의 고용지원금으로 쓰는 것.
이것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
공정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
아닐까요?

A high-angle, wide shot of a massive crowd of people gathered on a light-colored, flat surface. The crowd is densely packed and arranged to form a large heart shape. The individuals in the crowd are wearing a variety of colorful clothing, creating a vibrant mosaic of colors. The heart shape is centered in the frame, with its point extending towards the bottom. The background is a plain, light-colored surface, and the overall scene conveys a sense of unity and collective action.

우리 모두
장애인이 될 수
있는 만큼
장애인의 고통을
지원해 주어야
되지 않을까요?